



쑹꾸로 걷는 비밀 모험

서지영

작가 소개



서지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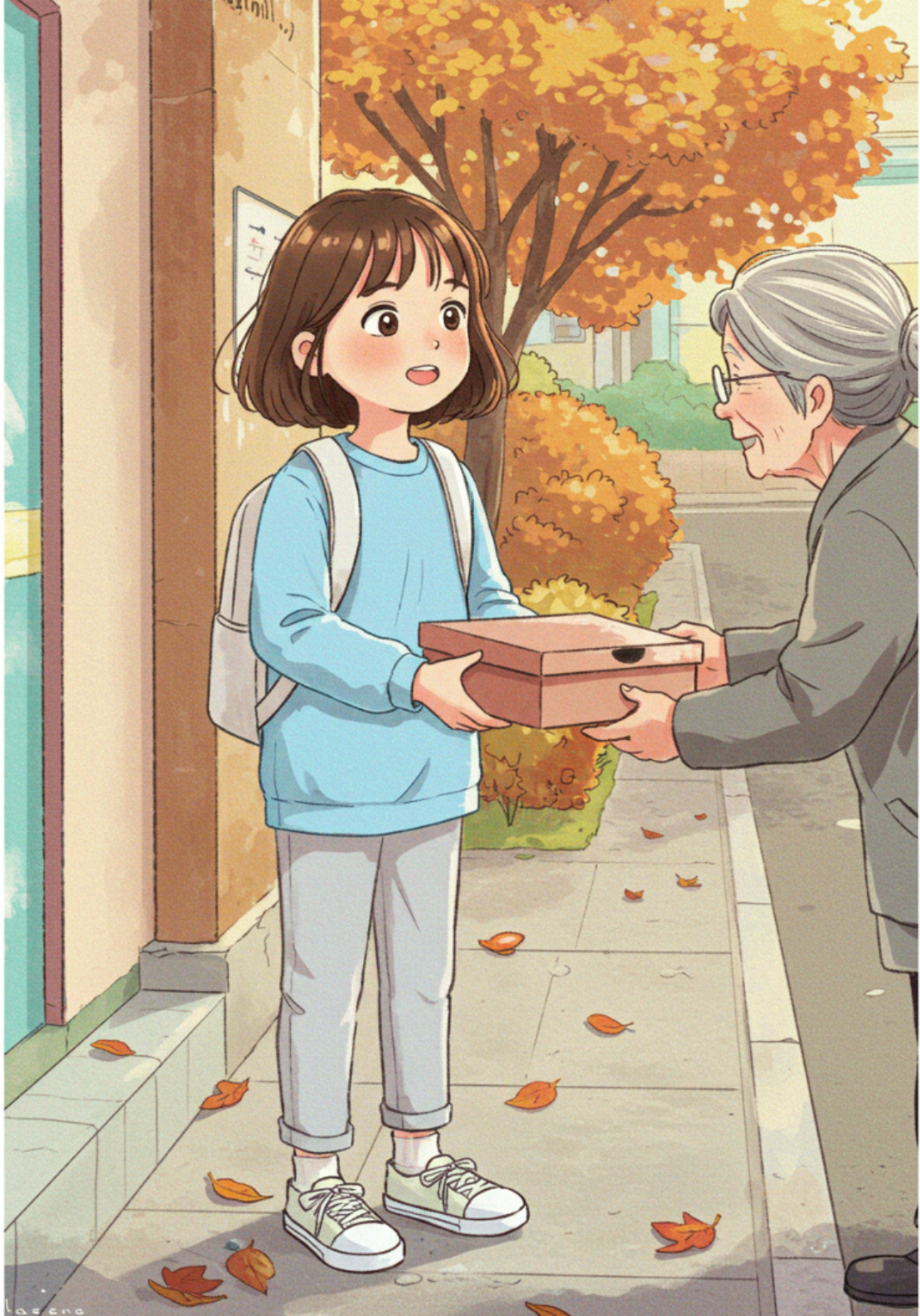
아이들과 그림으로 마음을 나누며 웃고 울고,
함께 성장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집에서는 여덟 살 딸과 미술로 소통하며
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.

지금은 또 다른 꿈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
옮기고 있습니다.

언젠가 그림책 작가의 꿈 또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,
오늘도 글과 그림 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





어느 날, 해인은 길모퉁이에서 과일이 데구루루
굴러가는 걸 보았어요.

허둥지둥 달려가 주워드리자, 할머니가 고마운
미소를 지었어요.

“애야, 네가 큰 도움을 주었구나.”

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.





그 안에는 하늘빛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.

운동화 안쪽 바닥에는 낫선 문장이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.

‘앞으로 가려면, 뒤로 걸어라.’

해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.

“무슨 말이지?” 하고 중얼거렸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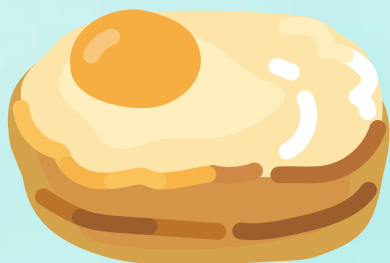




호기심 많은 해인은 운동화를 꼭꼭 눌러 신고,
뒤로 한 발자국~

사각, 사각! 발자국이 종잇장처럼 뿌려지며
세상이 바뀌었어요.

눈을 뜨자, 어제 아침과 같은 옷을 입은 엄마가
부엌에서 계란빵을 굽고 있었어요.





“엄마, 오늘은 어제 맞지?”

계란빵을 보며 해인이 묻자 엄마는 웃으며
머리를 가웃했어요.

궁금증이 더 커진 해인은 두 걸음을 뒤로 걸었어요.





이번엔 놀이터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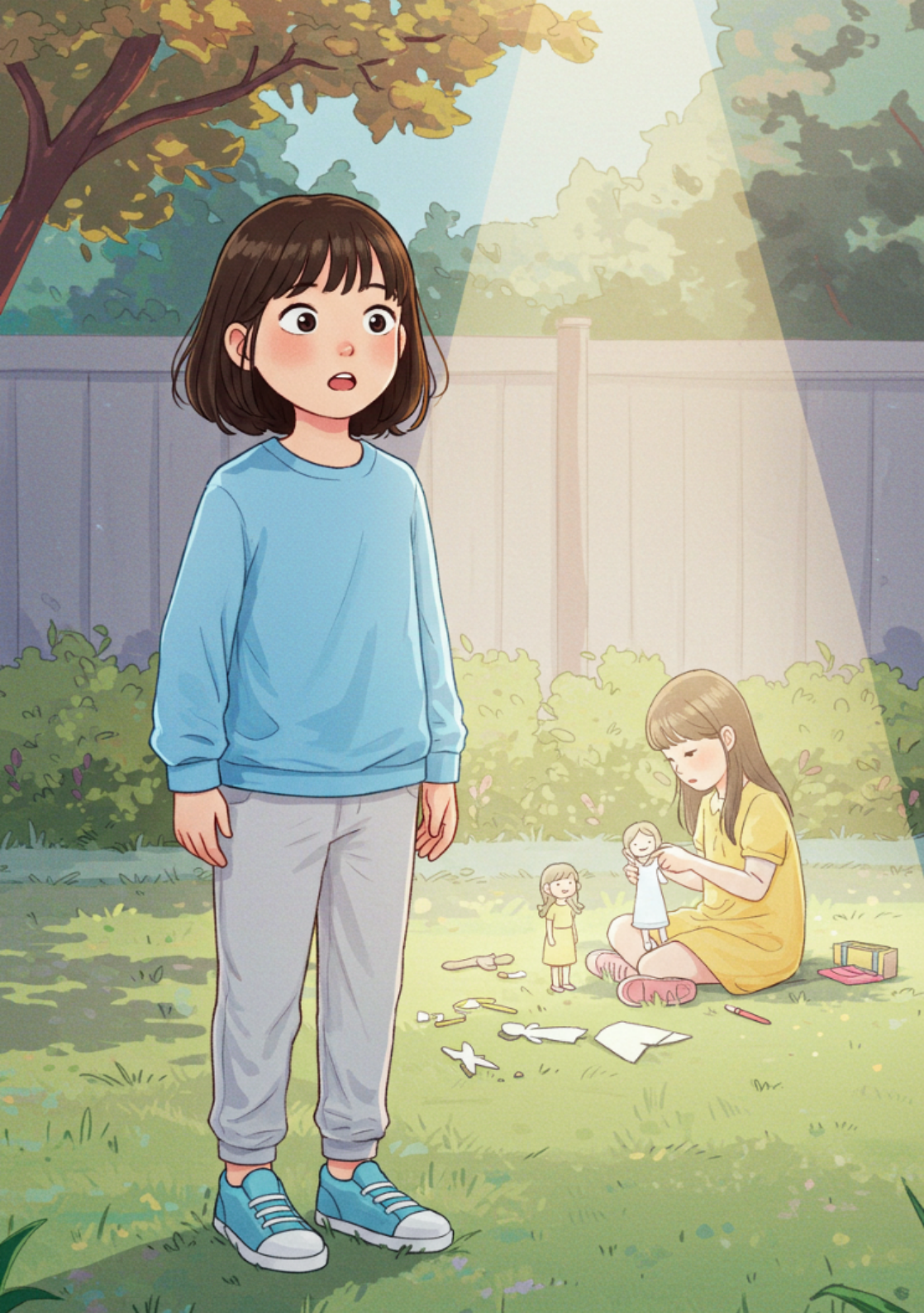
친구 시윤이 모래 위에 왕관을 얹고 있었어요.

“시윤아, 내일도 이거 만들자!”

“내일? 오늘도 안 끝났는데?”

시윤은 까르르 웃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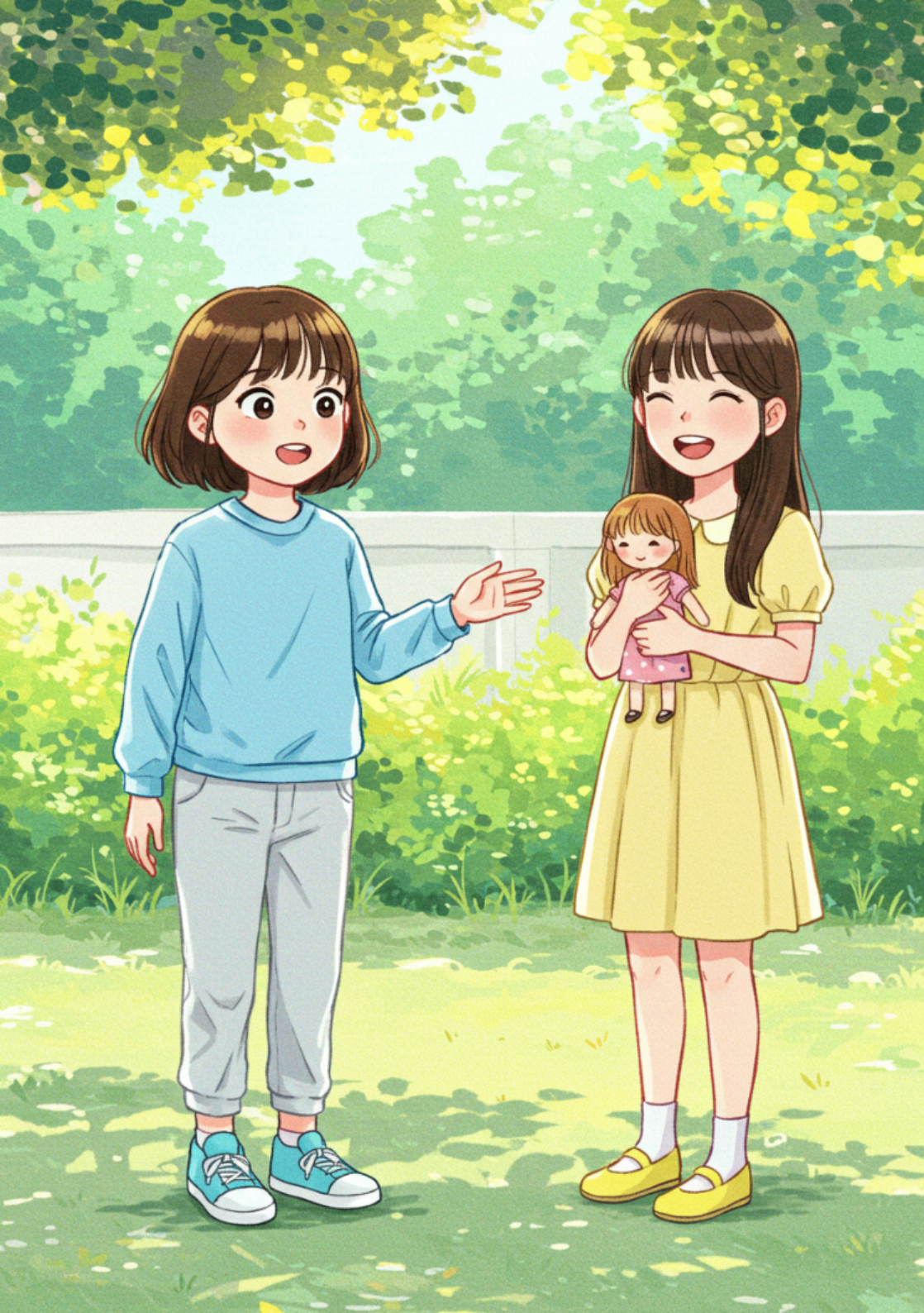


해인은 점점 신이 나 세 걸음을 물러섰어요.

그 순간, 마당 한쪽에 어린 소녀가 앉아 인형옷을
만들고 있었어요.

그 소녀는 바로, 어린 시절의 엄마였어요.





해인은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어요.

“안녕, 이름이 뭐예요?”

소녀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.

“나는 지영이야. 너는 누구니?”

해인의 가슴이 두근두근 간질거렸어요.





네 걸음을 뒤로 물러 서자, 시골 마당 풍경이
나타났어요.

이번엔 할머니의 어린 시절이었어요.

어린 할머니는 남동생을 업어서 재우고 있었어요.

어린아이가 아가를 재우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
보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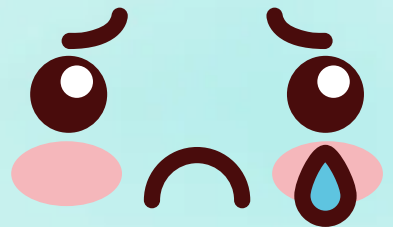
‘이 신발은 가족의 추억을 보여주는 거였어!’

해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.





해인은 엄마와 할머니의 과거를 보고나니
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.
시간은 계속, 계속 거꾸로 흐르고 있었어요.





마지막으로 다섯 걸음을 물러섰을 때
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

푸른 숲과 고요한 강물만 끝없이 이어졌어요.

“너무 멀리 와 버렸어.” 해인은 중얼거렸어요.





해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, 이번엔 앞으로
한 걸음 한걸음을 내디댈어요.

숨~숨~숨~

장면들이 되감기듯 회오리처럼 스쳐 지나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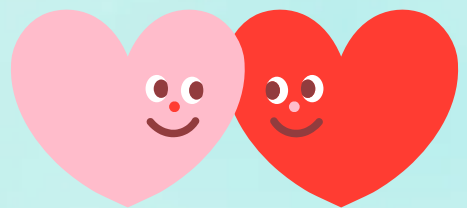




집 현관 앞에 도착한 해인은 신발장 앞에서
운동화를 벗어 상자에 곱게 넣었어요.

“잘 있어, 시간의 신발아. 다음엔 네 비밀을
더 들려줘요.”

해인은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보내기로
마음먹었어요.





거꾸로 걷는 비밀 모험

발 행 | 2025년 9월 11일

저 자 | 서지영

기 획 |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

지 도 | 김정훈

본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의
2025년 읽·걷·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.

© 사탕별에서 온 편지 2025

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